

도시가계의 피복비지출에 관한 연구

Clothing Expenditure Analysis of Urban Households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배 미 경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박 광 회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Bae MiKyeong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Park Kwa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and related variables in Korea. In addition, we analyzed the differences of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between overall overspenders and non-overspenders. We use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tudy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Double logarithm functional forms were used to adjust the normality of sample distribu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t-test were utilized as a statistical tools.

The present study was divided into four folders. First, the income elasticity of clothing expenditures was examined by different groups such as age, job, and education levels of households as a percentage change of clothing expenditures to a percentage change of income. Second, to analyze the effects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clothing expenditure, we utilized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in the separate regression equation by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Third, using spending to income ratio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the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between overall overspenders and non-overspenders. Fourth,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by overspenders and non-overspenders

were discussed.

1. 서론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소득증대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은 소비의식구조,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더불어 소비지출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윤혜정, 1984; 김영숙과 왕인숙, 1989). 소비지출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가정학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9대 비목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소비지출구조의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가운데서 피복비에 관한 연구는 한 부분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으므로, 피복비 지출만을 다룬 연구는 수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분석방법이나 자료의 활용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복비 지출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의류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생산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의 피복지출패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복비 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1980년대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피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정수진, 1996). 이는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의 구성비도 증가하지만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피복비의 구성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박선미와 김영숙, 1992). 피복비를 포함한 소비지출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의식구조, 가치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행동양식이 다양해지고, 소득수준, 문화수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의 소비생활은 끊임없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으로 소비행위를 유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지출은 변화되고 있다(김영숙, 1990).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과 또한 최근에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과소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소비성향 변화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4년 피복비 지출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변인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획일적인 영향력보다는 가구주의 연령, 직업, 교육에 따라서 그 외의 변인의 영향력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각 유목에 있어서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밝히며 과소비와 피복비 지출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 지출액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복비의 변화 추이

양세정(1991)의 1970-1990년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피복비 지출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낮은 비율의 증가를 보였으나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그 보다 높은 증가를 보여 피복 및 신발이 생활의 필수적인 물건으로 소비되었으나 점차 사치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두련(1991)은 가정생활환경의 변화 즉 인구 통계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측면의 변화가 소비자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히려는 연구

에서, 피복비지출이 1981년에 비해 1983, 1985년에 이르면서 지출비율은 점차 감소하다가 1988년에 이르러서는 그 전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복이 의생활패턴의 고급화 경향과 함께 소득탄력성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과소비행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류재술(1992)은 도시근로자의 소비패턴에 나타난 과소비유형을 분석한 결과, 피복비의 소비구조는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1980년대 말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과소비는 피복비 지출패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2. 피복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피복비를 소득탄력성과 연결시켜 설명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소득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하는 품목을 재화의 특성에 따라 가계가 필수품으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필수재와, 바람직한 상태를 제공하지만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고 또 생산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닌 사치재, 소비자에게 여유가 생기면 보다 좋은 물품으로 바꾸게 되는 열등재로 나누게 된다. 이는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의 값으로 주로 구분되는데,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필수재로, 1보다 클 때는 사치재, 0보다 작을 경우 열등재로 간주된다. 즉 필수재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지출도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나 그 비율은 소득의 변화율에 못 미치는 경우이고, 사치재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비율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감소하는 경우이다(손상희, 1993; 윤정혜, 1984).

윤정혜(1984)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가계 피복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960년대 전반에는 1보다 크며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았던 1960년대에는 피복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컸으나 일정소득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의복의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

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복신발류의 대량생산 및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아졌을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김영숙과 왕인숙(1989)은 도시가계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을 기간별로 분석해 볼 때 1975년과 1976년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서 선택적 비목이었으나 1977년 이후에는 소득탄력성이 점점 낮아져서 필수적 비목의 성격을 나타내며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낮아지고 있어 긴요도가 높은 필수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최은숙(1990)은 1962-1981년간에 우리 나라 민간 소비 지출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전체민간소비 지출은 가처분 국민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피복비에 대한 단기지출함수의 변동에는 일관성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수진(1996)은 전체 소비자의 피복비 소비지출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 소비자 피복비 지출은 소득에 대해 탄력적으로 나타나 도시 소비자의 피복비 소비지출이 소득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기간별 분석 결과를 보면 1965-1977년 사이에는 소득탄력성이 1.88, 1978-1984년 사이에는 0.35, 1985-1993년 사이에는 0.94로 도시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은 소득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다가 급격히 둔화되었다가 다시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3.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김영숙과 왕인숙(1989)은 도시가정의 피복비 지출 변화의 추이를 사회 경제적 변인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1963년부터 198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별 피복비는 24세 이하에서 지출이 많았고, 25-39세에서 증가 현상을 보였고, 40세 이후에는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족원수가 많아질수록 피복비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서 피복비의 구성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ardis 등(1981)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면 연령은 낮아질수록 피복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Norum(1989)은 소득, 교육수준, 직업, 연령, 결혼여부는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노동직에 비해 피복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피복비 지출은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소득은 피복비 지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관된 결과가 밝혀졌다(Hager & Bryant, 1977). 여고생들을 대상으로한 김애련과 김진구(198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여고생들은 유명상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율이 높았고 월 평균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경과 이은영(1993)은 지위불일치에 따라 같은 사회계층 내에서도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도 직업지위 및 교육수준에 따라 의복 선택 기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같은 소득계층에서도 직업지위 및 교육수준에 따라 피복비 지출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지위불일치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밝혀주는 한 측면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손상희(1993)는 소비항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섯 개의 소비패턴유형(주거지배적, 온건균형적, 개인교통지배적,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사회 강조 소비유형)을 규명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피복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집단은 사회 강조 소비유형으로 높은 소득과 많은 지출, 높은 교육수준, 전문사무직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고 하였다.

4. 과소비와 비과소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교

과소비란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수준”으로 정의되지만 학술적인 연구와 매스컴 보도에 있어서는 과소비에 대한 개념적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명희, 이

승신, 배미경, 1996).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연구에서 단지 의료비와 기타항목에 있어서만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Hanna, & Lindamood, 1993). 이 연구에서 과소비 측정은 Lytton, Garman과 Porter(1991)가 제시한 비율분석으로서 저축과 투자부문을 제외한 총 소비지출의 합계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소비하는 가계, 1이하인 경우는 비과소비하는 가계로 간주하였다.

한국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소비 집단과 과소비 하지 않은 집단의 소비지출 차이를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18 지출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과소비하는 가계가 비과소비하는 가계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희, 이승신, 배미경, 1996).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납부하는 세금액은 과소비 가계가 21만원으로 비과소비 가계의 14만원보다 많고, 식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용모유지비, 공공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에서도 과소비 가계가 비과소비 가계보다 다소 높은 지출액을 보였다.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생활필수품에서도 다소 많은 지출이 있었으나, 교육비, 문화레저비, 의료비, 개인교통비와 같은 생활의 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비항목에서 두드러진 지출액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총지출에 대한 실소득의 비율로 나누어진 두 그룹이 소비생활의 패턴이 유의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두그룹의 월평균소득은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더 높는데 반해서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현저한 소비지출 수준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저축액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상당액의 지출이 현재 소비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

본 연구의 피복비 지출 분석을 위하여 1994년의 도시가계연보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도시가계연보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가 소득 수준별, 가구 인원수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가구주의 직업별 등의 인구 통계학적 분류에 의해 제공된다. 가계지출 가운데 피복비 지출항목은 1976년부터는 피복과 신발류로 분류되었으며 그 세부항목은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연보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 표본수는 3만 7천여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표본에서 소득이 0보다 큰 가구만을 포함시켜, 소득에 비해서 총 지출이 높아 과소비 하는 가정은 7천여 가구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비과소비 가정으로 표본중 2만 9천여 가구로 차지하고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네 단계로 나뉘어 진다. 첫째, 소득의 변화에 따른 피복비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별로 소득탄력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가계 피복비 지출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각 가구주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무에 따라서 그 외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세번째로는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지출을 가구주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그 외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에 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비 지출이 비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double logarithm을 사용하여 자료를 변환시켜 회귀계수의 정확한 측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소비지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double log functional form이 통계적으로 더 나은 회귀측정을 가능케하였기 때문이다(Massel & Heyer, 1969;

Dardis, Derrick & Lehfeld, 1981; Lino, 1990; Norum, 1989). T검증의 경우 자료가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서 검증을 하게 되나 이러한 가정이 위반된 경우에도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Glass와 Hopkins의(1984, p.238) 주장에 따라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비교를 위한 t 검증에는 변형시키지 않은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시 사용된 log function 및 소득탄력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피복비 지출과 독립변수중의 하나인 소득을 모두 log function으로 취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보는 모델은 아래와 같다.

$$\log Ci = \alpha + \log \chi_1 + \beta_2 \chi_2 + \beta_3 \chi_3 + \dots \beta_i \chi_i + \varepsilon \tag{1-1}$$

위의 모델에서 각각의 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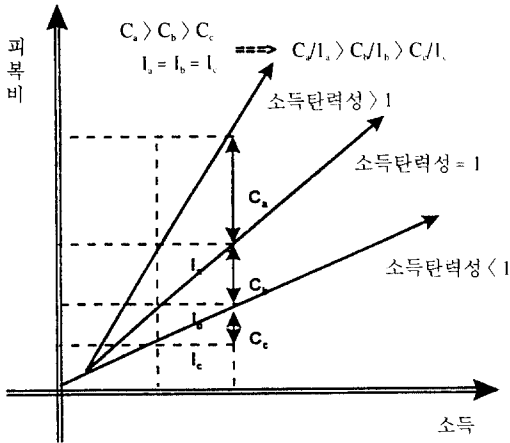
$$\beta_1 = \frac{\partial \log C_1}{\partial \log \chi_1}, \beta_2 = \frac{\partial \log C_2}{\partial \log \chi_2} \tag{1-2}$$

다른 β_i 도 같은 방식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β_1 은 종속변수 % 변화량 분의 독립변수 % 변화량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β_1 은 곧바로 소득탄력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것을 자세히 쓰면

$$\beta_1 = \frac{\partial (\log C_1, \log C_2)}{\partial (\log \chi_1, \log \chi_2)} \tag{1-3}$$

즉 피복비 지출 변화량($\log \rho_1, \log \rho_2$)을 소득변화량($\log \chi_1, \log \chi_2$)으로 나눈 값이 β_1 으로서 일반적으로 1보다 큰 경우 사치재로 1보다 작으면 필수재로 정의된다. 결과에 나오는 회귀분석에서 소득에 나타난 회귀계수는 곧바로 소득탄력성으로 해석되어지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소득탄력성과 피복비 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그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피복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그림 1〉에서 소득탄력성을 $\epsilon = C_a/I_a, C_b/I_b, C_c/I_c$ 로 보면

$$\epsilon_i = \frac{C_i}{I_i} > \frac{\Delta C_{ai}/C}{\Delta I_{ai}/I} > \frac{\Delta C_{bi}/C}{\Delta I_{bi}/I} > \frac{\Delta C_{ci}/C}{\Delta I_{ci}/I}$$

으로 나타난다.

ϵ 는 피복비 지출 변화량을 소득의 변화량으로 나누어 준 값이며 〈그림 1〉에서와 같이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보다 기울기가 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피복비의 소득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을 사용하여 다른 집단별 피복비 지출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복비 지출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을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로 분류된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연령의 경우 20세 미만에서 30-40세 그룹까지는 소득탄력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40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이후에 피복비 지출에 있어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는 김영숙과 왕인숙(1989)의 연구결과와, 일정소득수준에 도달하면 의복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피복비 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는 현상(윤정혜, 1984)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직의 소득탄력성이 다른 직업에 비해 근소한 차이지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인 경우 가장 낮은 소득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직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고소득자로서 소득의 증가에 비해 피복비 증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서비스 직업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사자의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전문대의 경우 가장 높은 소득탄력성인 1.04로 나타나 이 그룹의 경우 피복비가 사치재로서의 역할을 하며, 다른 세 그룹은 비슷한 수준의 소득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Norum(1989)의 연구결과에 따라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여 그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이때 피복비 지출 증가분이 소

〈표 1〉 연령, 직업, 교육수준별 피복비의 소득탄력성

그룹	변인	소득탄력성
연령:	20세 미만	0.660003
	20-30세	0.836816
	30-40세	0.952742
	40-50세	0.878019
	50세이상	0.766663
직업:	전문직	0.739173
	관리·사무직	0.870445
	서비스	0.878005
교육수준:	생산·운수직	0.873659
	초등학교	0.851881
	중·고등학교	0.876773
	초·전문대 대학·대학원졸	1.049257 0.873370

득에 비해 더 많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대학·대학원 졸업자는 고소득의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많으므로 다른 지출항목의 필요에 의해 피복비 지출 증가분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초·전문대의 경우 지위상승에 대한 동기가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의복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사회적인 지위상승 효과를 보려는 동기가 강한 연유에서 피복비에 과다한 지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구주의 직업,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피복비 지출 분석

가구주의 직업별, 연령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피복비 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서 각 그룹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에서 각 그룹별 피복비 지출에 관련된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를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표 2〉 - 〈표 4〉) 종속변수는 피복비지출이며, 독립변수로는 총지출, 연령, 가족원수, 수입원수등으로서 인구·사회학적변인 중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큰 순서로 중요한 변인만을 표기하였다.

모든 직업에 있어서 총지출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직업을 제외한 세 그룹 모두 수입원수로 나타났다. 서비스 직업에서는 수입원수보다 가장의 연령이 피복비 지출에 더 큰 영향력을 주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룹의 경우 가족원수가 연령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른 세 그룹에서는 연령이 가족원수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영향력은 직업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문직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반면 타직업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의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문직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계층이 상향하게 됨에 따라 그 계층에 부합되는 의복착용을 하기 위해

서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나눈 그룹별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룹에서 총지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의 경우 가족원수가 수입원수보다 피복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보였고, 다른 네 그룹에서는 수입원수가 가족원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 이는 20세 미만의 경우 아직 부모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그들의 피복비 지출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 수입원수보다는 가족원수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원수를 보면 40세까지는 피복비지출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회귀계수가 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40세이후에는 회귀계수가 정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그 값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40세까지는 자녀에 관련된 교육비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이 큰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저축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큰 40세 이전에서 가족원수와 피복비 지출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미래 저축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을 보면, 총지출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으며, 대학·대학원의 경우 연령, 수입원수, 가족원수의 순으로, 전문 대의 경우 연령, 가족원수, 수입원수, 중·고등학교의 경우 수입원수, 연령, 가족원수의 순으로 피복비 지출에 영향력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별로는 총지출을 제외하고는 각각 독립변수가 그룹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직업별, 연령별 회귀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써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연령이 피복비 지출에 영향력이 큰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증가하나 고학력자의 소득증가율보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수입원수가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2〉 직업별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표준화된 회귀계수	전문직	관리·사무직	서비스	생산·운수·기타
총지출	0.317970**	0.386586**	0.369124**	0.371010**
수입원수	0.068313	0.046223**	0.054731*	0.078876**
가족원수	0.042886	-0.004979	0.026261	0.012741
연령	0.008014	-0.031808**	-0.093640**	-0.048123**
R ²	0.1441	0.1392	0.1597	0.1494

**=.001, *=.05

〈표 3〉 연령별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표준화 계수	20세 미만	20-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총지출	0.276653**	0.347947**	0.407328**	0.395559**	0.361260**
가족원수	-0.145908*	-0.028810*	-0.002955	0.0257930*	0.003367**
수입원수	-0.074220	0.032813**	0.035996**	0.068656**	0.079542**
R ²	0.1077	0.1280	0.1649	0.1691	0.1647

**=.001, *=.05

〈표 4〉 교육수준별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표준화 계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초·전문대	대학·대학원
총지출	0.367652**	0.380651**	0.439341**	0.378644**
연령	-0.071862**	-0.038682**	-0.052924	-0.055594**
수입원수	0.077674**	0.053306**	0.027374	0.050413**
가족원수	0.057704**	0.003375	-0.036325	0.009369
R ²	0.1756	0.1465	0.1808	0.1418

**=.001, *=.05

3.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과소비집단, 비과소비 집단을 소득과 지출로서 구분하였다. 기존의 과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과소비 측정은 Lytton, Garman과 Porter(1991)가 제시한 비율로서 저축과 투자부문을 제외한 총 소비지출의 합계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소비하는 가계, 1이하인 경우는 비과소비하는 가계로 간주하였다. 즉 소득보다 지출이 큰 경우를 과소비 하는 집단으로(박

명희, 이승신, 배미경, 1996), 역으로 소득이 지출보다 더 크므로서 가계 저축을 유출할 수 있는 집단을 비과소비 집단으로 보았다. 〈표 5〉는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및 피복비지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과소비 집단은 전체의 19%를 차지하였고 과소비 집단의 평균 피복비 지출은 약 124만 7천원으로 비과소비 집단의 약 87만 7천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지출의 경우 과소비 집단은 198만원정도이고 비과소비 집단은 11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이나

〈표 5〉 과소비, 비과소비 집단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차이

변 인	비과소비 집단 (n=29920)		과소비 집단 (n=7088)	
	평균		평균	
평균 피복비 지출액	87,765(원)		124682(원)	
피복비 구성비	0.079(7.9%)		0.063(6.3%)	
총 지출	1,117,630(원)		1983950(원)	
가족원 수	3.78		3.81	
수입원 수	1.54		1.28	
연령	38.71		39.48	
	빈 도			
성별	남자	88%	남자	85%
	여자	12%	여자	15%
교육수준:				
국민학교		10%		11%
중·고등학교		58%		55%
초·전문대		7%		6%
대학·대학원		25%		28%
자가소유상태:				
자가		44%		50%
무상주택		4%		3%
전세·보증세		48%		41%
월세		4%		6%

가족원수는 두 집단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교육수준이나, 자가소유상태, 그리고 성별에 관련하여 각 그룹에 해당되는 표본의 수는 두 집단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 과소비 및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지출 차이
소득과 지출에 따른 과소비, 비과소비 집단을 연령, 직업, 교육수준별로 나누어서 피복비 지출의 차이를 t검정으로 살펴보았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서 두 집단의 피복비지출을 비교해 보았는데 모든 연령단계에서 두 집단의 피복비 지출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각 연령단계마다 과소비집단의 평균 피복비지출이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 지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세 이상 그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단계에서는 표준편차

역시 두 집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교육수준별로 나누어진 그룹에서 과소비 집단이 비과소비 집단보다 평균 피복비 지출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또한 두 집단별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나누었을 때, 전문직, 관리, 사무직, 생산직에서는 과소비 집단의 피복비 지출이 비과소비 집단의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그룹의 경우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간의 피복비 지출에는 그다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2)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회귀분석: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지출과 관

〈표 6〉 과소비, 비과소비 집단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른 피복비지출 차이검증

항 목	피복비 평균값(도수)		표준편차		t 값
	비과소비 집단	과소비 집단	비과소비 집단	과소비 집단	
연령:					
20세 미만	64832(230)	89109(85)	61432	90827	-2.27* ^{ue}
20-30세	82501(6336)	112449(1315)	113044	176535	-5.91** ^{ue}
30-40세	82445(12108)	115296(2629)	93677	155173	-10.45** ^{ue}
40-50세	95268(6801)	127043(2014)	107337	160786	-8.33** ^{ue}
50-60세	101815(3735)	172753(814)	124673	334100	-5.97** ^{ue}
60이상	87104(710)	124261(231)	238171	262794	-1.90* ^c
교육수준:					
국민학교	71007(3120)	107774(784)	80486	223071	-4.54** ^{ue}
중·고등학교	80779(17323)	112648(3892)	94180	185102	-10.44** ^{ue}
초·전문대	86280(1998)	114097(420)	103026	126176	-4.23** ^{ue}
대학교·대학원	111334(7479)	157081(1992)	148766	205583	-9.30** ^{ue}
직업:					
전문직	107604(626)	176733(150)	122240	211162	-3.86** ^{ue}
관리·사무직	105338(11759)	147435(2926)	137143	198643	-10.84** ^{ue}
서비스	83070(2374)	91664(61.3)	102285	112883	-1.71
생산·운수	74233(12108)	103466(2595)	81256	150228	-9.62** ^{ue}

e=equal variance, ue=unequal variance; *.05, **.0001

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의 피복비지출에 관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피복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표 5〉에서 제시되었던 총지출, 연령, 가족원수, 수입원수, 성별, 교육수준, 자가소유 상태를 포함시켰다. 피복비지출 자료가 비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료변형을 위하여 피복비와 총지출을 log 형태로 변화시켜서 double log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소비 집단의 회귀분석 R²는 0.10에 비해 비과소비 집단의 R²는 0.18로서 비과소비 집단의 경우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피복비에 관한 소득 탄력성을 비교하면 비과소비 집단은 1.09로서 피복비가 사치재로서 나타났다고, 이에 반하여 과소비 집단의 경우 0.55로서 피복비는 필수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가계 연보를 이용한 한국가계의 과소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소비를 하는 집단이 비과소비 집단보다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박명희, 이승신, 배미경,

1996) 과소비 집단의 경우 소득이외의 다른 자원으로 전체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과소비 집단의 소득탄력성이 비과소비 집단의 소득탄력성보다 낮은 것은 위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소비 집단의 경우 다른 수입자원에 의해 소비지출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소득탄력성만으로 피복비지출을 필수재로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한편 비과소비 집단의 경우 소득의 증가율보다 피복비지출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자산의 규모가 적은 이유를 들 수 있겠고, 이와 함께 비과소비 집단의 경우 지출의 규모가 자산보다는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비교할 때 독립변수중 총지출, 연령, 그리고 가족원수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피복비 지출과 관련이 있으며 총지출은 피복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연령과 가족원

〈표 7〉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의류비 지출액	비과소비 집단(소득)총지출)			과소비 집단(소득)총지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상수	-4.3930	0.0000	-20.80**	2.9807	0.0000	7.85**
총지출(log 값)	1.0921 ^a	0.4444	71.63**	0.5581 ^a	0.2828	21.56**
연령	-0.0080	-0.0650	-10.22**	-0.0038	-0.0295	-2.26*
가족원수	-0.0067	-0.0063	-1.06	0.0564	0.0499	4.07**
수입원수	0.0833	0.0471	8.02**	0.0293	0.0117	0.96
성별	0.1761	0.0457	8.21**	0.0868	0.0243	2.02*
교육(대학·대학원 이상)						
초등학교	0.1111	0.0275	3.94**	-0.2725	-0.0654	-4.58**
중·고등학교	0.0935	0.0375	5.66**	-0.0989	-0.0377	-2.77*
전문대	0.0471	0.0096	1.66	0.0121	0.0022	0.18
자가소유 (자가 소유)	0.0624	0.0093	1.71	0.0336	0.0045	0.39
무상주택	0.0806	0.0326	5.45**	-0.0537	-0.0202	-1.57
전세·보증세	-0.0778	-0.0126	-2.27*	-0.1261	-0.0223	-1.83
월세						
F 값	608.22			75.45		
R ²	0.1828			0.1050		

a=소득탄력성 / *=0.05, **=0.0001

수가 증가할수록 피복비 지출이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성별은 두 집단 모두 여성의 경우 피복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젊은층이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Dardis, Derrick, & Leheld, 1981; Wagner & Hanna, 1983) 동일하며, 과소비 집단의 경우 가족원수가 증가할수록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 비과소비 집단의 경우는 가족원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자가소유상태에 관한 가변수를 보면, 비과소비집단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가계보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가계의 경우 피복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가계의 경우 다른 소비 지출 항목에의 지출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교육수준이 낮은집단이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은 지위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과소비 집단의 경우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가계가 피복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 집단의 경우 자가소유상태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 비해서 월세인 경우 피복비지출이 적게 나타났고, 전세, 또는 보증세의 형태의 경우 피복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가소유의 경우에는 자기집을 소유한 정도가 되면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복비 이외에 지출해야 할 항목들이 많아지게 되어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월세의 경우에 비해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피복비 지출양상을 인구 사회학적 인 특성으로 나누어 소득탄력성 및 그룹별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과소비 집단, 비과소비 집단의 피복비 지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복비 소득탄력성에 관한 결과로는 연령별로 피복비 지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40세를 전후해서 소득탄력성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별로는 초·전문대가 가장 높았다.

2) 직업, 연령, 교육수준별로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관련정도를 보기 위해서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는 각기 다른 그룹별로 다른 변인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그룹별 피복비 지출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3) 비과소비와 과소비집단을 나누어 평균 피복비 지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각 그룹별 피복비 지출이 과소비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두 집단에 피복비 지출이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복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 연령별 피복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득이나, 교육수준의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독립변인들이 통제되어 있는 조건에서 젊은 층이 더 많은 피복비 지출을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독립변인들이 두 집단 모두 피복비 지출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특징적인 것은 과소비 집단과 비과소비 집단간의 피복비 지출 유형을 각 연령별, 교육수준별, 집단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거의 모든 그룹에서 과소비 집단이 비과소비 집단보다 평균 피복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회귀분석을 통하여 과소비 집단에서는 피복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1보다 적게 그리고 비과소비 집단에서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이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과소비 집단의 피복비지출 증가량이 소득증가액보다 더 적게 나타난 반면, 비과소비 집단의 경우 피복비 증가액이 소득증가액에 비해서 더 큰 것을 시사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가계 연보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보면 과소비 집단의 경우 소득보다는 자산이 비과소비집단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과소비 집단의 경우 더 많은 자산으로 비과소비 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피복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과소비집단에 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에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피복비는 전반적으로 가계내의 필수재로서 나타났으며 지출항목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피복비지출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특정한 가계의 경우 피복비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피복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소비행동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지출행동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마케팅 차원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보다는 다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이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미래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피복비 구성별, 즉 품목별 지출비 양상과 변화를 본다면 좀더 구체적인 피복비 변화 추세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2) 국은경제연구소(1993). 도시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욕구 변화. 한국인의 소비생활.
- 3) 김애련, 김진구(1986). 가정의 경제수준과 여고생의 의복구매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9-17.
- 4) 김영숙(1990). 한국 가정의 가계 소비유형 분석. 소비생활연구, 5, 31-49.

- 5) 김영숙, 왕인숙(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6) 류재술(1992). 80년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비구조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59-74.
- 7) 문숙재, 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2), 53-66.
- 8)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6). 한국 도시근로자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9) 박선미, 김영숙(1992). 한국경제개발 계획연도별 가계소비지출 구조분석. *한국가정학회지*, 10(2), 1-18.
- 10)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11) 양세정(1991).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54-67.
- 12) 유두연(1991).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연구*, 2(2), 41-54.
- 13)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85-100.
- 14) 정수진(1996).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양상과 그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정용선(1993). 소득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 *소비자학연구*, 4(1), 59-73.
- 16) 조인경, 이은영(1993). 사회적 지위 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복 선택기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 11-18.
- 17) 최은숙(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 *소비자학연구*, 1(1), 127-158.
- 18) 허문희, 신혜숙(1994). 우리나라 소비구조의 특성과 결정요인. *KDB 산업경제*, 19, 1-17.
- 19) Bae, M.K., Hanna, S., & Lindamood, S.(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 20) Dardis, R., Derrick, F., & Lehfle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1.
- 21) Frisbee, W. R.(1985).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clothing expenditures. *Canadian Home Economics Journal*, 35(4), 201-206.
- 22) Hager, C. J., & Bryant, W. K.(1977). Clothing expenditures of low income r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1(2), 126-132.
- 23) Glass, G. V., & Hopkins, K. D.(1983). *Statistical method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24) Lino, M.(1990). Factor affecting expenditur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 191-201.
- 25) Lytton, R., Garman, E., & Porter, N.(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26) Massel, B. F., & Heyer, J.(1969). Household expenditure in Nairobi: A statistical Analysi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7, 212-234.
- 27) Norum, P. S.(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40.
- 28) Wagner, J., & Hanna S.(1983).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281-291.